

# ‘셀 아메리카’ 우려에 美주식·채권·달러 트리플 약세

S&P500 지수 2.06%↓...새해 상승분 모두 반납  
달러가치 떨어지고 금값은 온스당 4700달러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럽을 향한 ‘그린란드 관세’ 위협이 ‘셀 아메리카’ (미국 자산 매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뉴욕증시 3대지수가 20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70.74p(-1.76%) 내린 48,488.59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3.15p(-2.06%) 내린 6,796.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61.07p(-2.39%) 내린 22,964.32에 각각 마감했다.

새해 들어서도 강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S&P 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새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이날 S&P 500 지수의 낙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응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증시가 급락했던 작년 10월 10일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는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뉴욕증시 마감 무렵 20.09로 올라 작년 11월 이후 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합의가 없을 경우 유럽 국가들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셀

아메리카 우려가 재부상한 게 투자심리를 냉각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참여를 압박하며 프랑스산 와인·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갈등 증폭 우려를 키웠다.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엔비디아(-4.38%), 테슬라(-4.17%), 애플(-3.44%), 아마존(-3.40%), 알파벳(-2.43%) 등 빅테크(거대 기술기업) 주요 종목이 하락했다.

채권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과 더불어 일본 국제시장 충격 영향까지 가세해 미 국제 가격 하락(국제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국 채 수익률은 전 거래일보다 6bp(1bp=0.01%p) 오른 4.29%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9월 초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30년 만기 미 국제 수익률은 같은 시간 전장보다 8bp 오른 4.92%를 나타내 역시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달 조기 총선거를 실시할 방침을 굳힌 가운데 일본의 재정 악화 우려로 일본 국제 수익

률이 급등한 게 미국채 수익률 상승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쳤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는 이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공세와 관련해 “자본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미국 자산을 사들이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셀 아메리카 우려에 달러화 가치도 가파른 약세를 이어갔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같은 시간 98.6로 전장 대비 0.8% 하락했다.

배녹번 캐피털 마켓의 마크 캔들러는 수석시장전략가는 로이터에 “미국 등의 증시가 과도하게 팽창된 수준이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며 “무엇이 ‘바늘 한 방’이 될지 몰랐지만, 이제 그것을 찾았다”라고 평가했다.

반면 금 가격은 온스당 4700달러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765.8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3.7% 급등했다.

은 가격도 이날 장중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이날 오전 온스당 95.87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뒤 상승 폭을 반납했다. 은 가격은 2025년 한 해 147% 폭등한 데 이어 2026년 들어서만 30% 넘게 오르며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와 관세 정책의 순기능을 언급하던 중 이같이 한국, 일본과 도출한 대미 투자금 합의를 거론했다.

## 트럼프 “韓·日과 합의로 전례없는 자금 확보”

### 대미 투자금 합의 성과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 성과와 관세 정책의 순기능을 언급하

던 중 이같이 한국, 일본과 도출한 대미 투자금 합의를 거론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말한 직후 나왔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일 투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한 직후 한일 대미 투자금 합의를 거론했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한일 투자 유치를 별개의 성과로 각각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과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이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연합뉴스

## CUSTOMER SATISFACTION

고객 만족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DH Group



www.global-dh.com

DH 글로벌